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농업정책

◆ 김정은 현지지도

김정은의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로동신문 2016.01.23.)

- 김정은이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였음.
 - 최룡해, 안정수, 조용원, 김여정이 동행하였음.
- 공장 일꾼들은 껌 생산공정 등 새로운 식료품 생산공정을 개발하였으며 공정의 현대화 작업을 마쳤음.
 - 공장은 현대화 공사 중에도 식료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음.
 - 공장은 19종, 10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해 생산을 시작함.
- 공장은 설비를 적소에 배치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장을 개건해 제품 생산량을 1.5배 증가시킴.
 - 공장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기호가 변하는 것에 맞춰 예측 가능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였음.
 - 공장은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이뤄 국가계획 수행 및 주문생산이 가능해짐.
 - 공장은 제품의 위생을 생산현장과 통행로를 유리로 분리함.
- 공장은 현대적인 분석 설비와 위생통과 시설, 공기정화장치를 갖추어 무균 수준을 높였음.

◆ 박봉주 총리 현지이해

박봉주 총리 황해남도 농업 사업 현지 이해(조선중앙통신 2016.01.22.)

- 박봉주 총리가 황해남도 물길 공사장과 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 해주연결농기계공장 등을 시찰했음.
 - 총리는 물길 공사장을 돌아보면서 작업 속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조했다.
 - 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과 해주연결농기계공장의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였음.

박봉주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현지 이해(로동신문 2016.02.26.)

- 박봉주 내각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현지 이해하였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축산기지 건설을 위한 자재 확보 대책이 강구되었음.
 - 협의회는 《애국풀》 등 먹이풀 생산과 과학적 가축의 사양 관리에 대해 토의하였음.

◆ 과학영농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로동신문 2016.01.03.)

- 북한의 농업인이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종자와 농법을 받아들여야 함.
-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등 농장들은 조생종 모 재배 방법을 받아들인 경험에 기초해 농장 실정에 맞는 과학농법을 받아들여야 함.
 - 지력과 물 저장 여건, 일조율, 온도 등을 고려하여 모판 준비와 씨뿌리기, 모내기에 과학 기술을 적용해야 함.
 - 축산과 채소, 버섯, 과수 부문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농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함.

과학 축산으로 연 첫 돌파구 - 신의주 닭 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1.06.)

- 알닭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사료를 추가하는 것 보다 사료의 소화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임.
- 토착미생물로 생산한 흙 먹이와 단백질, 인 분해 효소를 첨가제처럼 아용하도록 하였음.
- 회토류 원소도 먹이에 보충해 알닭의 몸 안에서 아미노산의 합성을 촉진하여 알 생산이 늘어남.

- 오전에는 노른자위가, 오후에는 흰자위와 껍질이 완성되는 알닭의 생리학적 특성에 맞춰 먹이의 배합 비율과 사료 배급 횟수를 규정함.
 - 오전에는 주로 단백질 함량과 열량이 높게, 오후에는 인과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되게 배합 비율을 맞춰 생산한 사료를 배급하고, 배급 횟수를 하루 3회에서 2회로 줄임.

과학기술 열풍으로 끓어번지는 일터 - 만경대 경흥식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1.10.)

- 만경대경흥식료공장은 200여 가지의 맛과 질이 좋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음.
 - 공장에서 생산된 밀쌀 튀기, 흰 쌀 튀기 과자, 종합 강정, 당과류와 빵 등 갖가지 식료품은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춰 인민과 어린이들의 기호에 부합함.
 - 공장의 생산공정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무인화 되었음.
 - 공장 직원들은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생산공정에 대한 원격 대학 강의를 받음.

과학 농사 시대는 이런 선구자를 요구한다 - 농업 정보화 실현에 앞장선 봉산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02.24.)

- 봉산군이 농업 정보화를 실현함.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부터 농장까지 컴퓨터 망을 형성하였음.
 - 컴퓨터망을 통해 선진 영농 기술의 보급과 영농 공정에 대한 통제 및 기술 지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장은 컴퓨터망을 형성하기 위한 빛섬유케이블을 설치하였음.
 - 농장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술 강습을 진행하여 업무 보고를 컴퓨터로 하는 체계를 세웠음.
- 청계협동농장은 밀, 보리 이삭비료주기 방법을 컴퓨터망에서 얻은 정보를 응용하여 적용하였음.

높은 수준의 농업정보화를 지향하는 포전기상관측체계(로동신문 2016.03.08.)

- 농업의 과학화와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포전기상관측체계의 도입을 추진 중임.
 - 포전기상관측체계는 농작물과 과일 나무의 생육 예보와 병해충 예보를 가능하게 함.
- 북한식으로 제작된 포전기상관측체계는 포전의 대기온도와 습도, 이슬점, 일조량, 강수량, 바람의 속도 및 방향과 같은 기상조건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관측함.
 - 포전기상관측체계는 수감부, 기상자료기록기, 휴대용기상자료수집기, 전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상자료기록기는 우량계 풍향풍속계가 전송한 측정값을 이용해 대기온도, 상대습도, 이슬 점, 일조량, 강수량을 계산하고, 자료를 컴퓨터나 휴대용기상자료수집기로 무선 전송함.
- 무선통신거리는 100~200m임.
- 휴대용기상자료수집기는 무선으로 기상자료기록기를 통해 기록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보 관하여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게 함.

연구 과제를 앞당겨 결속 - 산림과학원에서(로동신문 2016.03.29.)

- 산림과학원의 일꾼과 과학자가 북한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에 기여할 과학 연구 사 업을 진행했음.
- 산림기계연구소의 일꾼과 과학자는 북한의 자체 기술로 산불 소화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풍력식 소화기와 수동식 물 펌프의 설계를 끝냈음.
- 산림육종학연구소의 과학자는 너도밤나무를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나무의 생육 및 성장 특 성에 대한 연구 사업을 완성하였음.
- 산림조성학연구소는 심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는 테라코텀 생산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도 입 시험 단계에 진입했음.

그림 1 북한의 씨 뿌리기 작업



자료: 로동신문 2016.03.31.

◆ 산림 복구 작업

산림 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일꾼회의 진행(로동신문 2016.01.19.)

- 산림 복구 및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 회의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박봉주, 오수용, 노두철, 태종수와 도당 책임 비서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무력

기관,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산림 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음.

- 회의 참석자들은 2015년도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합심해 전국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1,300여 톤의 나무 종자를 확보하여 산림 복구전투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강조하였음.
- 군대는 야외 나무모 재배장과 농수 확보를 위한 수원지와 굴포를 새로 건설하였음.
- 회의에서는 각지에서 양묘장을 개건하고 나무모를 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언급되었음.
- 회의 참석자들은 외무성, 대외경제성, 교육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성, 수산성, 육해운성, 낙원지도국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에서 좋은 나무종자와 선진 과학기술 자료 및 설비를 마련하고 평양시와 황해북도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여 활착률을 높였다고 말하였음.

산림 복구 전투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로동신문 2016.03.02.)

- 김정은은 2015년 2월 26일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노작을 발표하였으며 산림 복구를 시작하였음.
- 성, 중앙기관 일꾼과 도, 시, 군 일꾼은 산림조성 10년 전망 계획 수행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산림을 복구함.
- 평양시의 책임일꾼은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나무모 생산 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산림 복구 사업을 대중적사업으로 확대하였음.
 - 태천군, 평원군, 덕천시의 일꾼과 근로자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단천시와 안악군, 철원군, 운산군은 나무모 생산 기지를 재정비하였음.
- 황해북도는 2015년 봄·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 동안 1만 4,000여 정보에 창성이깔 나무, 세잎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활착률을 극대화했음.
 -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 동안 자강도 일꾼과 근로자, 청소년은 2만 수천 정보의 산에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심어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음.
- 황해남도는 도의 실정에 맞춰 세운 2015년도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계획에 기초해 봄철 나무심기 준비 사업을 구체화하였음.
 - 계획에 기초해 나무심기 준비 사업을 진행한 결과, 태탄군, 신원군, 송화군 등 많은 군의 모체 양묘장이 개선되었음.

- 개선된 모체 양모장에서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가 확보되었으며 약 1,000만 개의 구덩이 파기, 1,500여 정보의 풀 두둑 짓기, 2,100만 개의 나무모영양단지 생산 작업을 완수했음.

산림자원 관리의 정보화 적극 추진(로동신문 2016.03.15.)

-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국 산림자원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음.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국 산림자원 평가 사업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임.

- 위성 자료 해석 기술과 지리 정보 체계 기술, 산림 고정 표준지 조사 체계를 이용한 산림자원 관리 정보 체계가 완성되면 10년에 한 번 진행하던 전국 산림자원실태조사를 20~30명의 적은 인원으로 매년 진행할 수 있음.

- 산림구역의 위치와 지형, 현황, 기후, 거리, 면적 등 각종 지표의 측정과 통계 작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지도 작성과 3차원 산림 지형 묘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산림 건설 설계와 총 계획 작성, 전면 조사와 국소 지역 조사, 산불 진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농림축산업

◆ 농업

최우선 과제는 우량 품종 도입 문제 - 강서구역청산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1.04.)

- 우량 품종 도입 문제가 농촌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음.
- 기존의 우량 품종은 저온에 취약하고 다비성 성격을 띠며, 벼의 낱알이 쉽게 떨어졌음.
- 새롭게 개발된 벼 우량 품종을 기존 품종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 재배함.

기존 우량 품종 대비 정보당 500kg 증수하였음.

- 새 우량 품종은 흰 잎마름병 등 병에 대한 견딜성¹⁾ 및 내한성이 강하고 비료를 적게 필요로 하며, 정보당 10톤 이상의 수확을 내었음.

1) 농작물이 병해충, 습기 따위에 잘 견디어 내는 성질.

- 북한 농촌은 새 우량 품종을 북한 논 60% 이상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 토양을 분석해 논을 상·중·하로 구분하였음.
 - 중으로 분류된 논에 새 우량 품종을 배치하였음.
 - 인 성분이 부족한 논의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광산에서 450여 톤의 원료를 확보함.

삼지연군의 농장들에 달려 나가(로동신문 2016.01.05.)

- 양강도의 일꾼과 근로자가 삼지연군의 농장을 지원함.
 - 감자 농사의 본보기로 정해진 삼지연군의 농장에 1,000여 톤의 거름을 운반함.
 - 토지 정리 돌격대와 양강도 여단은 삼지연군 포태지구에서 토지 개량 작업을 수행함.
 - 삼지연군은 군의 모든 운송 수단을 동원하여 1만여 톤의 이탄을 발으로 운반하고 있음.

알곡 수만 톤 증수를 담보하는 작전 - 숙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01.06.)

- 숙천군은 토양 조건, 비료 수준 등 밭 특성에 맞춰 품종을 배치함.
 - 물 저장 여건이 좋고 지력이 높은 밭에는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을 배치함.
 - 지력이 보통인 밭에는 아지치는²⁾ 능력이 강하고 수확고가 비교적 높은 우량 품종을 배치함.
 - 물 저장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밭에는 뿌리 활성과 내건성이 강한 품종을 배치함.
 - 숙천군 농가는 90% 이상의 논에 큰모 재배방법을 도입함.
- 모판 씨뿌리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
 - 비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민산³⁾, 유기질복합비료 생산 준비와 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과일 생산 장성의 방도는 지력 제고 - 온천과수농장 일꾼과 근로자(로동신문 2016.01.06.)

- 2016년, 북한 과일 농장은 과일 생산량 최대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세부 계획은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과일나무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임.
 - 거름을 많이 주는 것은 과일 나무의 영양이 부족해 해거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2) 화분과 식물 줄기의 밑동에 있는 마디에서 결눈이 발육하여 줄기, 잎을 형성하는 일.

3) 묽은 알칼리에 녹고 무기산을 작용시킬 때에 침전물로 가라앉는 토양 부식질의 한 성분. 그 함량이 높을수록 토양 부식질의 질이 좋다.

- 일꾼들 돼지우리와 물거름받이시설, 퇴적장 등을 조성해 거름을 생산함.

20%의 채소 증산 예비 - 온성군 온실채소생산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1.06.)

- 사업소는 양배추와 배추 등 모든 작물에 대한 비배관리와 모기르기에 집중함.
- 온실 채소는 포기당 생산 목표가 높고 계단식으로 계속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모종 생산의 품질과 시기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함.
- 군당위원회의 지도하에 모기르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함.
 - 밤 기온이 영하 20℃아래로 떨어지는 겨울철 날씨 때문에 온실 보온에 집중함.
 - 온실 바닥을 깊이 파고 북데기와 벗짚, 거름을 깔아준 후 균 처리를 하여 토양온도를 높여줌.
 -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해 오이 모종은 낮에 28~30℃, 밤에 13~15℃, 봄통배추⁴⁾는 각각 23~25℃, 8~10℃로 온도를 정확히 유지해줌.

농업 근로자와 농근맹원의 쉼기 모임 진행(로동신문 2016.01.09.)

- 농업 근로자와 농근맹원의 쉼기 모임이 2016년 1월 8일 강서구역청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음.
 - 모임에서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강서구역 농근맹위원장 하용남, 강서구역 청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윤춘화, 만경대 채소 전문 농장 농장원 라정성이 토론하였음.
- 모임 참석자는 과일 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정보당 수확고를 끌어올리고,《애국꽃⁵⁾》을 널리 퍼뜨리려야 한다고 말하였음.
 - 참석자는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양어장, 채소 온실과 버섯 생산지를 잘 관리하여 인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참석자는 산림 복구 작업에 집중해 나무 심기와 비배관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음.

새 우량 품종 도입 면적을 늘리기 위한 작전 - 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01.13.)

- 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2016년 주품종을 작년과 다르게 정하였음.
- 기존의 우량 품종은 저온에 취약하고 다비성 성격을 가짐.

4) 통이 지는 봄배추. 통이 얇은 것이 특징인데 보통 키가 낮고 속이 연하다.
5) 지칫과의 여러해살이풀.

- 새로 받아들인 우량 품종을 기존 품종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이전의 우량 품종보다 정보당 수확고가 500kg이나 더 많았음.
- 새 우량 품종의 벼는 내한성이 강하고 비료와 물을 적게 필요로 했음.
- 새 우량 품종 재배 면적을 이전 대비 20% 이상 늘릴 계획을 세움.
- 석화·인암협동농장은 지력이 높은 밭에 조생종 모를, 조락 논에는 영양단지모를 심어 종자 소요량이 적고 소출을 높이는 영농 방법을 적용하였음.

온실 채소 생산에서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 - m² 로가 아니라 m³ 로(로동신문 2016.01.16.)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온실 내 남은 공간과 뒷벽, 다짐길 등을 이용해 여러 가지 채소를 입체 재배함.
 - 농장은 계절에 따라 온실 뒷벽에 작물을 배치했음.
- 여름에 온실 뒷벽에 오이를 재배하였음.
 - 농장 일꾼은 여름철 조건에 맞는 입체 재배 방법을 모색해 온실 뒷벽을 따라 오이 넝쿨이 뻗어 올라가도록 함.
 - 입체 재배 방법을 도입하니 한 호동에서 500kg 이상의 오이를 추가로 수확함.
 - 오이 넝쿨이 태양열에 의해 벽체가 가열되는 현상을 막았음.

온실 채소 생산에서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 - 다수확을 담보하는 과학적인 재배 계단 조직(로동신문 2016.01.16.)

- 사동구역 장천채소전문협동농장의 온실 형태별 작물 배치 경험은 온실 채소 생산에 과학적인 재배 계단 조직이 다수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함.
 - 농장은 온실 형태에 따른 온도 변화에 기초하여 작물을 계단식으로 배치함.
- 토벽식박막온실에서는 시기별로 작물을 배치하고 재배 계단을 6단계로 조직하여 작물을 증산함.
 - 시금치는 11월 초에 파종해, 11월 말에 영양단지모를 옮겨 심고, 12월 말에 수확하였음.
 - 쑥갓은 온실 바닥에 직접 파종해 다음 해 2월 중순에 수확하였음.
 - 배추 씨앗은 1월 초에 뿌려 2월 중순에 성형모를 옮겨 심고, 4월 초에 수확하였음.
 - 재배 계단 4단계에서는 3월 초에 오이 모종을 옮겨 심어 4월 중순에 수확하였음.

- 5단계에서는 토마토를, 6단계에서는 오이를 재배하면서 정보당 300톤 이상의 온실 채소를 생산함.

- 궁룡식련동온실에서는 겨울에 보온이 어렵고 여름에 환기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재배 계단을 3단계로 조성함.

- 1단계에는 시금치, 2단계에는 배추와 토마토, 사이짓기로 상추를, 3단계에는 가을 오이, 사이짓기로 배추를 재배하였음.

- 파종은 작물에 따라 직파, 성형모, 싹모 재배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함.

온실 채소 생산에서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 - 큰 은을 내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로동신문 2016.01.16.)

- 평성시 삼화채소전문협동농장에서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해 온실 뒤 벽체를 이용하는 돼지우리를 건설하였음.

- 돼지우리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북데기, 톱밥, 벚겨 등을 깔아 거름을 생산하였음.

- 농장은 돼지우리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물거름을 생산하였음.

- 한 호동에서 매년 수백 톤의 거름이 생산되었음.

- 온실 뒤에 돼지우리를 건설해 온실 내 탄산가스 농도 보장 문제도 해결되었음.

- 순환생산체계는 온실과 돼지우리의 보온에 효과적임.

- 하나의 돼지우리에서 매년 여러 톤의 고기를 생산함.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남 먼저 울리리 - 농업성 일꾼들과 나눈 이야기(로동신문 2016.01.20.)

- 부상 리재현: 종자가공 공장에서는 다수확 우량 품종이 확보된 것에 맞춰 선별·정선된 강냉이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성에서는 공업적인 방법으로 종자 피복제를 생산하여 지하 해충 피해를 막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화학비료와 연유를 영농 작업 시기에 맞춰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물잡이⁶⁾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하였음.

- 기자: 농사 전망이 낙관적인 것에 맞춰 각지 농촌에서 우량 품종과 과학농법을 수행할 때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가.

6)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물을 채워 두는 일.

- 국장: 우량 품종과 과학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각지 농촌에서는 우선 시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종자를 절약할 수 있는 영농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벼농사에서 영양단지모와 큰모 등에 의한 소식 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이전보다 종자 소비량을 줄여야 함.
 - 강냉이 농사에서 영양알 직파와 성형알 직파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종자 소비량을 줄이고 빈 포기를 없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함.
- 물절약형 농법 도입에도 힘을 넣어야 함.
 - 마른논 씨레치기, 불경 두둑 재배, 원그루 큰모 재배, 이랑 재배 등 2015년도 농사에서 성과가 있었던 여러 가지 농사법에 관심을 돌려야 함.
 - 물이 부족한 단위와 간석지, 염도가 높은 물을 이용하는 시, 군, 협동농장에서는 앞그루로 밀, 보리, 감자를 심고 뒤그루로 큰모를 내거나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을 심어 정보당 총 알곡 소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흙보산비료, 미생물비료, 미량원소대용비료, 성장 촉진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대용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진행해야 함.
 - 남조류생물활성퇴비, 티오균비료, 고농 린세균비료, 칼륨·티탄비료 생산에 힘을 넣어야 함.
 - 황해북도 은파군과 함경남북도 등 여러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비석을 화학비료와 섞어 그 효과성을 높이며 희망초가를 농업 생산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비료를 줄 때에도 깊은 층 비료주기 방법을 받아들여야 함.
- 각지 농촌들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에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원그루 큰모에 의한 모내기에는 6월 중순까지, 간석지, 냉습지, 조락 논을 비롯한 초기 생육이 나쁜 논과 뒤그루 모내기에는 6월 중·하순까지 모두 끝내야 함.
- 강냉이 농사에서 품종 섞어심기와 개꼬리뽑기⁸⁾, 오사리⁹⁾ 벗기기와 같은 영농 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병충해 예찰예보 체계를 확립하고 고지대를 제외한 모든 협동농장들에 빛 유인성 고전압 나비 등을 100% 설치하며 기생벌 놓아주기를 비롯하여 생물 농약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7) 황산나트륨, 황산칼슘, 석고, 진흙 따위로 구성된 광물.

8) 옥수수 이삭이 제때에 나와 수정이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옥수수 수꽃의 이삭을 제거하는 일.

9) 옥수수 이삭을 싸고 있는 껍질.

- 두별농사¹⁰⁾ 전략을 바탕으로 감자 대 밀·보리 파종의 비율을 7:3으로 하여 이전보다 밀, 보리를 증산해야 함.
- 감자 깎막모재배기술, 영양단지모와 이식 재배, 점파 재배에 의한 밀, 보리 재배 방법을 도입해야 함.
-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 기지, 농기계 작업소와 농기구 공장에서는 설비의 현대화에 집중해야 함.

제1세대 제1선 참호는 염려 말라(로동신문 2016.01.23.)

- 평안북도 박천군 송석협동농장은 일주일 동안 논 수습 정보에 대한 흠갈이를 진행하였음.
- 평안북도 선천군은 남조류생물활성퇴비 생산을 위한 수산화칼슘을 확보하였음.
- 평안북도 시·군 협동농장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자급비료 생산과 흙보산비료 원료 확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원산시의 기관과 기업은 도시 거름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 황해남도 연안군의 일꾼은 토량을 처리하여 물길을 복구하였음.
- 평안북도 철산군의 일꾼은 벗겨 발동 발전기를 이용하여 양수 설비에 대한 수리·정비를 수행하고 있음.
- 함경남도 정평농기계부속품공장에서는 12종, 850여 개의 트랙터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개성직할시 장풍군의 농기계 작업소와 농기구 공장은 내부예비¹¹⁾를 사용해 농기계 부속품과 농기구를 생산하였음.
- 농업성은 소출이 낮은 알곡 작물 품종을 다수확 품종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북한 농촌은 벼농사에서는 영양단지모와 큰모, 영양알모 등 효율적 벼모 기르기 방법과 벼모판종합영양제를 도입할 예정임.
- 농업성은 소식 재배 면적을 늘려 생육 단계별 비료주기 방법을 개선하고 깊은 층 묻어주기 방법을 도입해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성은 물이 부족한 논에 소출을 높이는 다수확 재배 기술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0) 이모작의 북한말.

11) 재생산 과정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거나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생산의 요소들로서, 동원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각지 일꾼과 근로자, 농촌을 힘 있게 지원(로동신문 2016.01.23.)

- 함경남도의 일꾼과 근로자는 하루 1,200여 대의 화물차와 트랙터, 2,800여 대의 소달구지 등 운반 수단을 총동원하여 7만 5,000여 톤의 거름과 소농기구를 농촌으로 운반함.
 - 함흥시는 하루 1,500여 톤의 거름을 시의 협동농장과 함주군 동봉, 운봉, 조양, 재안협동농장, 정평군 장천, 장동, 다호협동농장에 보냈음.
 - 함경남도 내 모든 시, 군 일꾼과 당원, 근로자가 새해 농촌 지원 작업에 참여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일꾼과 근로자는 2만 2,880여 톤의 거름과 20여 종, 8만 2,240여 개의 중소농기구를 도내 협동농장에 보내주었음.
 - 황해북도는 협동농장에 더 많은 중소농기구를 보내주기 위해 중소농기구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음.
 - 청진시 기관, 기업, 공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거름 생산 작업을 수행함.
 - 황해북도의 시·군 노동자, 사무원, 가정주부도 거름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종자 발아율을 높인 비결 -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6.01.29.)

- 벽성군산림경영소는 발아율을 높이는 저온 처리 방법을 도입함.
 - 종자의 저온 처리 방법은 종자를 깨끗한 물에 24시간 담근 후, 젖은 모래와 섞어 일정한 두께로 펴고 그 위에 판자를 덮어주는 방법임.
 - 경영소는 처리장의 온도를 0~5℃로 유지해주었음.
 - 경영소는 저온 처리 기간을 수종별로 다르게 진행하였음.
- 저온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경영소는 발아율을 이전보다 10% 더 높였음.

황해남도 땅이 농사 채비 전투로 끓는다(로동신문 2016.01.30.)

- 황해남도는 428만 톤의 거름과 28만 톤의 흙보산비료, 1만 4,000톤의 소석회를 생산하고, 210여만 톤의 거름을 운반했음.
 - 황해남도는 1만 4,700여 정보의 흙갈이에 필요한 모판 나래와 활창대¹²⁾를 모두 마련하였음.
 - 배천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41만여 톤의 거름을 생산하고, 22만 9,000 톤을 운반했음.
 - 안악군 일꾼은 물 절약형 농법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종자와 물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380m의 양수 철관을 제작하고 300m를 조립하였음.

12) 냉상 모판에 비닐을 덮기 위하여 모판에 가로질러 꽂는 오리목.

- 해주트랙터부속품공장과 해주연결농기계공장 일꾼과 종업원은 트랙터 부속품과 연결 농기계를 증산해 협동농장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5년 농업 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 진행(로동신문 2016.02.04.)

- 주체104(2015)년 농업 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가 있었음.
2015년도 농업 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은 물 절약형 농법 등 과학농법 도입으로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2015년 사리원시 미곡·용천군, 신암·태천군, 은흥·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 농사를 지어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였음.
- 사회주의증산경쟁에 참가한 평안북도 용천군, 운전군, 궤산군, 함경남도 단천시, 금야군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많은 알곡 소출을 내었음.
- 삼지연군과 대흥단군은 감자농사혁명방침을 토대로 감자생산계획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강계돼지공장과 흥주닭공장은 고기와 닭알 증산 성과를 이룩하였음.

로동신문 사설 -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올리자(로동신문 2016.02.05.)

- 외부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 자연재해로 농업 부문은 2015년에 난관을 겪었지만 알곡 증산과 농업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함.
- 북한의 모든 근로자, 일꾼, 과학자는 인민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곡, 특히 쌀 증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달성 여부는 당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임.
- 북한 농사에서 믿을 것은 오직 자체의 힘임.
- 북한 자체의 다수확을 내는데서 기본은 종자임.
 -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농업 부문의 과학자가 육중한 벼, 강냉이, 콩 등의 많은 우량 품종은 우월성이 입증되었음.
 - 농촌은 2015년도 자연기후조건을 극복하고 다수확을 낸 염주군과 용천군, 사리원시 미곡 협동농장처럼 시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을 적극 도입해야 함.
- 다수확을 위해 북한식의 과학농법을 도입하고 재배방법을 부단히 혁신해야 함.
농촌은 물절약형농법 등 과학농법을 전국으로 일반화해야 함.

- 농촌은 소식재배, 불경두독재배, 불경재배, 이랑재배 등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으로 소출을 높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농장의 사례를 학습해야 함.
 - 지력을 높이는 것은 다수확의 필수적 조건임.
 -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갈이를 하고 소식회로 산성화를 막아야 함.
 -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해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 휴민산 칼륨 등 유기질비료를 논밭에 많이 주어야 함.
 - 북한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농업의 기계화를 실현해야 함.
 - 2015년 문덕군에서는 20여 대의 벼중합수확기를 이용하여 2014년 보다 가을걷이와 탈곡을 빨리 끝냈고, 정보당 평균 700kg의 알곡을 더 수확하였음.
 - 트랙터공장과 트랙터부속품공장, 연결농기계공장의 현대화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추진하여 인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는 농업전선에 필요한 비료를 충분히 지원해야 함.
 - 작물 생육 기간에 맞춰 비료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국민 모두 알곡 생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새해 농사 준비에 역량을 총집중 - 황해북도에서(로동신문 2016.02.06.)
- 도당위원회는 당면한 새해 농사 준비 작업에 일꾼과 근로자를 참여시킴.
 - 2016년 1월, 황해북도 내에서 207만여 톤의 거름과 55만여 톤의 흙보산비료, 2만 6,000여 톤의 소식회를 생산하였고, 112만여 톤의 거름을 논밭에 전달했음.
 - 황해북도 일꾼과 근로자는 4,000여 정보의 흙갈이를 진행했음.
 - 2016년 2월에도 일꾼과 근로자는 활창대와 나래 등 모판 자재 준비를 갖추고 있음.
 - 도는 도, 시, 군급기관, 기업소와 공장이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실어 나르도록 하고 있음.
 - 도는 중소농기구전시회를 개최해 농기구와 영농물자를 농촌에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포전담당책임제와 경쟁심(로동신문 2016.02.06.)
-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 후 서흥군 거문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알곡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함.

- 포전담당책임제는 밭의 등급을 정해 각 농장원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임.
초급 일꾼은 재배 조건이 좋지 않은 밭을 담당함.
- 작업반장은 밭의 등급에 기초해 포전별알곡생산계획을 농장원에게 각각 정해주었음.
- 각 농장원은 분담된 밭의 지력, 토심 등을 깊이 이해해 각 토지에 적합한 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

다수확을 담보하는 콩 농사 사업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2.12.)

- 일꾼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2015년 어느 한 군에 도입된 우량 품종을 확대·보급하기로 하였음.
- 우량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해 발육이 2배 이상 좋으며 한 포기에 콩꼬투리도 많이 달려 정보당 최고 소출을 낸 품종이었음.
- 일꾼은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콩 우량 품종을 분석하여 영양단지에 씨를 넣고 재배하여 생육 기일과 생육적산온도를 맞추었음.
- 일꾼은 토양 습도가 유지되고 지력이 높은 밭에 우량 품종을 심어 종자의 내건성이 약한 문제를 해결하였음.
- 일꾼은 종자 확보와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전문 분조를 왜 조직하였는가 - 광산군 관상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2.21.)

- 광산군 관상협동농장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2015년 콩 농사에서 정보당 소출을 1.5배로 높였음.
- 김정일은 《콩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에서 콩 농사를 전문화할 수 있는 협동농장에서는 전문 작업반이나 분조를 따로 조직하고 콩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자고 언급하였음.
- 농장 일꾼은 작업반마다 콩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조를 조직하였음.
여러 명의 농장원을 전문 분조로 묶어 콩을 재배하도록 하여 콩 소출을 높였음.

전국 장거리 영농 기술 문답 서비스 실현(로동신문 2016.03.03.)

- 농업성과 농업과학원의 일꾼과 과학자는 선진 과학기술 보급을 위한 장거리 영농 기술 문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 장거리 영농 기술 문답 서비스에서 중요한 화상회의, 원격 강의, 실시간 문답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음.

- 프로그램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영농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화면과 대화,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책을 토의할 수 있게 되었음.

- 일꾼과 과학자, 기술자는 장거리 영농 기술 문답 서비스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자료화하여 보관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음.

줄어든 수천 정보의 모판 면적 - 평안북도의 시, 군에서(로동신문 2016.03.10.)

- 평안북도의 시, 군 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씨뿌리기 작업에 과학기술을 적용했음.

- 평안북도 내 협동농장은 이른큰모와 단지모를 논의 90%에 도입하였음.

- 발랭상모와 속성모를 심을 때에 비해 모판을 적게 소비하며 씨뿌리기 작업을 완수했음. 종자와 비닐박막, 활창대 등 영농 물자와 모판 자재를 절약하며 알곡을 생산할 수 있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도안의 모든 시, 군이 이른큰모 재배 방법을 도입하도록 할 것임.

- 평안북도의 협동농장은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의 사례를 활용해 2015년에 60% 수준에 머물렀던 이른큰모 재배 면적을 2016년에는 90%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나머지 면적에 단지모, 원그루큰모, 뒤그루큰모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마침.

자체로 만든 농기계가 차 넘치게(로동신문 2016.03.10.)

- 금천군 농기계작업소에서 대용 연료 발동발전기에 만부하를 걸어 종합논토양관리기계와 유기질복합알비료성형기를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생산하였음.

- 작업소는 2015년 15일 이상 걸리던 종합논토양관리기계와 유기질복합알비료성형기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토산군 일꾼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6.03.12.)

- 2015년 수합협동농장은 옥수수 밭에 영양알 직파 방법을 도입해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였음.

- 농장은 부식토와 요소비료, 진거름, 찰흙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단지¹³⁾의 규격을 작게 만들었다.

- 4월 말부터 5월 초에 피복한 옥수수 종자를 단지에 넣고 5~7시간 내에 심었음.

13) 모를 기르기 위하여 영양 물질이 많이 섞인 흙으로 만든 흙덩이

- 적은 재료로 영양알단을 만들었으며, 옮겨 심을 때 옥수수 영양단지모를 키워 심는 것보다 노동력이 적게 들었음.
- 옥수수가 가뭄을 이겨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뿌리를 깊이 내렸음.
- 질소, 인, 칼륨, 해충구제 성분이 있는 피복제에 담궜던 종자를 단지에 넣어 옮겨 심으니 성장이 촉진되어 가 굵고 이삭이 실하여 정보당 수확고가 평균 수백 kg이 늘었음.
- 농장원은 단지 재료 준비를 위해 부식토의 품질을 높였음.
 - 농장원은 부식토 원료 더미에 미생물의 활동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등이 유지되도록 흙을 덮어놓았음.
 - 숙성된 부식토를 채로 거른 후 비에 젖지 않도록 하였음.

정보당 6톤 이상의 해염토를 - 태탄군에서(로동신문 2016.03.15.)

- 태탄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지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밭에 정보당 6톤 이상의 해염토를 운반했음.
- 태탄군의 일꾼은 다량원소와 미량원소가 포함된 해염토를 이용하여 알곡 생산을 높인 여러 농장의 농사 사례를 활용하였음.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 설치 사업 결속(로동신문 2016.03.15.)

- 함경북도는 도내 모든 채소 온실에 수백 개의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하였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기상수문국, 김책공업종합대학과의 연계하여 장치 구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 군들이 자체의 기술 역량을 발휘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음.

모판에서부터 알곡 증산의 담보를 -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로동신문 2016.03.17.)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비료주기를 위한 모판 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있음.
 - 농장은 밭모, 밭상태모를 도입해 이룬큰모의 평당 파종하는 씨앗 양을 정해 한 포기당 동일한 영양 면적을 배당하였음.
 - 일꾼은 토양 산도를 낮추는 유산철로 종자를 처리하는 기술과 벼 마디가 길어져 이삭아지¹⁴⁾ 수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지도하고 있음.
- 광산군에서 파종을 적기에 수행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14) 이삭이 나와 열매를 맺는 가지

- 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모판 모서리에 보조 바람막이 바자를 설치하여 모판 온도를 5℃이상 높이고 평당 동일한 양의 씨앗을 파종하였음.

- 태천군은 파종 열흘 전에 모판에 박막을 씌워 토양 조건을 개선하였음.
기계를 이용해 파종하였으며, 파종 직후 물주기, 복토, 박막 씌우기를 진행하였음.
- 구성시안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파종 후 2중 박막 씌우기를 도입하였음.
-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온실 안 덕대 위에 상자식 모판을 올려놓는 방법, 임시 온실에 모판을 만드는 방법을 도입해 파종 작업의 효율을 높였음.

농기계부속품생산에 큰 힘을 - 강계트랙터부속품공장, 정평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3.20.)

- 강계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꾼과 노동자는 실린더, 피스톤, 기어, 베어링 덮개 등 트랙터 부속품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평군농기계작업소는 트랙터 부속품 생산을 매일 목표치의 1.3~1.5배 수행하고 있음.

청춘과원으로 전변시킬 드높은 열기(로동신문 2016.03.21.)

- 각지 과수 농장은 70일 전투 시작 후 20일 동안 수만 정보에서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진행했음.
 - 농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배 많은 과일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였음.
 -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평양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과일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날짜별, 포전별 계획을 세워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했음.
 - 평양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하루에 30여 정보에서 과일나무 가지치기를 진행하였음.
- 각지 과수농장 일꾼과 근로자는 20여 일 동안 대용 농약 총 생산 계획량의 75%를 생산하였음.
 - 은률, 신천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수입에 의존하던 농약을 자체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고 원료를 공수해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음.
 - 은률, 신천과수농장은 농약 생산의 원가를 줄이고 살균 효과가 큰 다류화바리움¹⁵⁾을 전투 이전에 비하여 1.5배 이상 생산하였음.
- 숙천청년과수농장은 새로운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음.

15) 황화바륨에 황이 더 결합한 다황화물의 하나. 균을 죽이는 데 쓴다.

- 첨가제는 농약을 50% 절약하게 하며 농약 지속 기간을 늘림.
- 첨가제는 살충 효과가 뛰어나며 생산 원가가 낮음.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공동순회우승기 수여(조선중앙통신 2016.03.22.)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2015년도 농업생산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위에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였음.
 - 북한 각지의 채소전문농장, 축산농장 등 146개의 협동농장과 목장이 공동순회우승기를 받았음.

벼모판 씨뿌리기 시작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6.03.26.)

- 황해남도에서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시, 군당위원회는 안악군과 청단군에서 벼모판 씨뿌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였음.
 - 도당위원회 일꾼은 시와 군의 농촌에서 씨뿌리기 기술 지도를 하였음.
-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의 협동농장은 품질이 좋은 부식토와 모판 자재를 마련해 모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 은천군, 은륜군의 농촌은 종자 처리와 모판 씨뿌리기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2 청단군의 모판 조성 작업 광경



볍모판 종합 영양제를 적극 생산 - 운전군에서(로동신문 2016.03.26.)

- 2015년 운전군은 볅모판 종합 영양제를 이용하여 정보당 수백 kg의 알곡을 증수하였음.
- 2016년에도 질 좋은 볅모판 종합영양제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운전군 책임일꾼은 군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으로 가서 생산 과정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영양제 증산을 강조하였음.
 - 공장의 종업원은 여러 가지 영양 성분과 살균, 산도 조절제를 혼합하여 만든 볅모판 종합 영양제를 증산해 협동농장에 제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녹반수를 이용한 싹틔우기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6.03.26.)

-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일꾼과 농장원이 싹틔우기에 녹반수를 이용할 계획임.
녹반수는 농작물의 생육에 유익한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있음.
- 농장은 종자 처리장에서 녹반수를 500배로 희석하여 종자를 20~24시간 동안 담군 후 싹틔우기를 할 계획임.
 - 농장의 경험에 의하면 종자를 녹반수에 담그면 발아율이 3~4% 높아지고 정보당 알곡 생산량이 7% 증가함.

우량 품종의 종자가 효과를 내게 - 서흥군에서(로동신문 2016.03.31.)

- 서흥군은 우량 품종의 종자가 증산 효과를 내도록 종자 피복 작업을 진행 중임.
 - 종자 피복을 기계화하여 서흥군의 농촌은 밭에 우량 품종의 종자를 심을 수 있게 되었고 수확이 기대됨.

봄보리 씨뿌리기, 가을보리 옮겨심기 결속 - 강원도에서(로동신문 2016.03.31.)

- 강원도의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가 봄보리 씨뿌리기와 가을보리 옮겨심기 작업을 계획 일정에 비해 일찍 마쳤음.
 - 창도군과 철원군은 자급비료, 휴보산비료, 종자 확보에 집중해 씨뿌리기를 성공적으로 마침.
 - 김화군, 회양군, 금강군의 농업 근로자도 봄보리 씨뿌리기를 끝냈음.
 - 통천군, 안변군, 문천시와 원산시, 고성, 천내, 판교군의 농업근로자도 가을보리 옮겨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냈음.

◆ 임업

더 많은 동발나무와 통나무를 - 성간림산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1.19.)

- 성간림산사업소의 일꾼은 작업소 산지 나무 터에 쌓인 동발나무와 통나무의 수량을 매일 확인해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송 계획을 세웠음.
- 작업소별 선후차를 정해 수송차가 동발나무와 통나무를 지체 없이 운반하도록 하였음.

나무심기에 식물생장활성제 도입 -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의 연구원(로동신문 2016.01.24.)

- 평북종합대학 농업대학에서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는 식물생장활성제 생산을 강조했다음.
- 식물생장활성제는 뿌리내리기를 촉진시켜 2015년에 진행된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활성제는 나무의 활착률을 높여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도록 도왔음.
- 도산림복구전투지휘부에서는 2016년 봄철에 식물생장활성제를 이용해 1만 정보의 산과 들에 나무심기를 진행할 계획임.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 60% 돌파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1.27.)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은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의 60% 계선을 돌파하였음.
- 연합기업소는 설비와 부속품, 연유와 보급물자 등 모든 생산잠재력을 통나무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

농약의 국산화 실현을 위한 투쟁 활발 - 각지 과수 부문 일꾼과 근로자(로동신문 2016.01.27.)

- 과수 부문에서 농약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류화바리움¹⁶⁾을 비롯한 10여 가지 농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은률, 삼천, 신천 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자기 지방에서 흔한 중정석을 이용하여 다류화바리움을 생산하고 있음.
- 중정석은 살균효과가 크며 농약 생산 원가를 80% 줄일 수 있음.
- 함흥, 단천 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설물로 석회류황합제를 생산하고 있음.
- 석회류황합제는 효력 지속기간이 길며, 녹병, 딱가루병, 진드기를 예방함.

16) 황화바륨에 황이 더 결합한 다황화물의 하나. 균을 죽이는 데 쓴다.

- 숙천청년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농약을 절약할 수 있는 첨가제를 연구개발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음.
- 평양, 사리원, 온천 과수농장을 비롯한 많은 과수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무공해 과일 생산에서 식물성 농약을 활용하고 있음.
- 용전, 황주 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의 일꾼과 근로자는 생산 원가가 저렴하고 병해충 구제에 효과적인 벗겨건류액을 생산하고 있음.

씨앗이 되고 밀거름이 되어 -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에서(로동신문 2016.01.29.)

-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의 일꾼과 과학자는 당분 함량이 많으며, 병해충에 강해 수확량이 많은 밤 품종을 육종하였음.
 - 새롭게 개발된 밤 품종은 밀식이 가능해 밤을 3배 이상 생산함.
 -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음. 밤나무는 열매, 목재로 사용되며, 꿀을 많이 함유한 밤꽃은 꿀 원천 식물임.
- 과학자는 어린 싹에 우량 품종의 1년생 밤나무 가지를 직접 접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수확 시기를 앞당겼음.
 - 새로운 접 방법을 도입한 여러 군은 나무모 생산량을 3~4배 이상 높였으며, 인력과 자재, 재배면적을 60%씩 절약하면서 밤 생산을 늘렸음.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테라코템 개발(로동신문 2016.02.01.)

- 산림과학원 산림조성학연구소의 일꾼과 과학자가 북한식의 테라코템을 개발하였음.
 - 테라코템은 토양 개선과 수분보충제 역할을 수행하며, 고흡수성수지와 비료성분으로 된 고체덩어리의 물질임.
 - 테라코템은 수분을 흡수하면 고체 상태에서 모양이 없는 겔상태로 변화함. 나무가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 필요한 수분과 영양 공급함.
 - 테라코템은 자기 체적의 200배 수분을 흡수하며,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 주변의 수분도 흡수함. 또한, 토지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함.
 - 테라코템 사용 방법은 테라코템을 1kg당 120배 물에 희석하여 나무의 뿌리를 넣었다가 꺼내어 산에 심는 것임.
- 북한에서 심은 나무의 활착률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조림 대상지 가운데 건조한 땅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가뭄 시기인 4월부터 6월은 나무의 활착률이 매우 저조함.

○ 2015년 의주군에 테라코템을 도입한 결과 나무의 활착률을 90% 이상 보장하였음.

필승의 믿음과 낙관에 넘쳐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 - 임업성에서(로동신문 2016.02.03.)

- 임업성의 일꾼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통나무를 충분히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자강도임업관리국 소속 임산, 갯목생산사업소의 일꾼은 2016년 1월 통나무 생산 계획 수행에 앞장섰음.
 - 관리국참모는 임산, 갯목 생산 사업소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해 통나무 생산을 늘렸음.
- 함경남도임업관리국 소속 임산, 갯목 생산 사업소의 일꾼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통쏘이¹⁷⁾ 등 운반 방법을 이용해 통나무 생산을 효율화함.
-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양강도, 함경북도임업관리국 소속 임산, 갯목생산사업소는 채벌장 확대, 벌목 효율화, 운반 수단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통나무를 증산하였음.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다그쳐 - 순천시산림경영소에서(로동신문 2016.02.23.)

- 순천시산림경영소에서 양묘장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나무모 생산기지로 꾸리는 작업 중임.
 - 분수 설비를 갖춘 야외 재배장, 지하 저장고 등을 꾸려 한 해에 61만여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음.
 - 나무모밭을 평지로 만들어 밭을 규격화하고, 밭에 기둥을 세우고 관수 시설을 설치함.
 - 태양빛전지판과 발동발전기로 얻은 전기를 이용해 성형기와 혼합기 분쇄 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게 하였음.
- 순천시산림경영소는 숲사이양묘장을 꾸려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등을 한 해에 수십만 그루씩 생산함.

현실성 있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 - 수안군 읍산리용반에서(로동신문 2016.02.26.)

- 북한 농촌은 임농복합경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산을 수림화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함.

17) 산비탈에 낸 흙을 따라 통나무가 저절로 내려와 쌓이도록 하는 일. 또는 그런 시설.

- 수안군 읍산리 용반은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하여 잣나무, 밤나무, 단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했음.
 - 나무들의 열 간격과 나무 사이 간격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심었음.
 - 토양 침식이 이전보다 줄어 지력이 높아졌고 농작물생산성으로 이어졌음.

국토환경보호성 일꾼과 나눈 이야기(로동신문 2016.03.03.)

- 기자: 식수절을 맞아 각지에서 나무심기가 시작되었음.
 - 도, 시, 군별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일으켜 성과를 내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함.
 - 산림 복구 작업의 과제는 무엇이며 작전과 실천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 산림총국 총국장 김명철: 국토환경보호성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2016년), 빨리 자라면서 경제적 이용 가치가 큰 나무를 지난해(2015년) 보다 수억 그루 더 심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경영 목적에 따라 목재림을 많이 조성하도록 하였음.
 - 목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에서 많이 쓰이는 창성이깔나무, 세 잎소나무 등 목재로 쓰이는 나무를 심도록 하였음.
 - 수만 정보의 섬유제지림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섬유제지림을 조성해 방직섬유와 종이섬유를 해결할 수 있음.
 - 뿔나무림을 조성하도록 하였음. 뿔나무림은 빨리 자라고 불땀이 센 아카시아나무와 왜싸리 나무를 섞어 조성하는 것이 좋음.
 - 수천 정보의 기름나무림과 산과실림을 조성하게 하였음.
- 기자: 나무모 확보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 국장 강현: 합격기준에 도달하고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나무모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였음.
 - 나무모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젖은 마대나 가마니에 넣어 수송한 다음 빨리 심는 것이 중요함.
 - 영양단지에 의해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였음.
- 기자: 산림 복구 작업의 기본은 나무의 활착률 제고라고 생각함.
- 산림총국 부총국장 김성준: 현지에 나간 일꾼은 나무의 활착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 활착률을 높일 때 중요한 것은 가뭄 피해를 막는 것임.
 - 2015년 황해남도 일꾼과 근로자는 나무를 심을 때 파박막을 이용하여 활착률을 높였음.

일꾼은 나무를 땅에 묻은 후 밟아주고 그 위에 작은 구멍이 2~3개 있는 파박막을 씌웠음.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약간 덮은 다음 또 밟아주었음. 파박막을 덮으니 물 증발이 줄어들었고 증기 발생률이 낮아져 나무의 활착률이 높아졌음.

- 양묘장도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강계시, 송원군, 덕천시, 강남군은 나무모를 현지에 보낼 때 닥풀우림액이나 느릅쟁이¹⁸⁾, 진흙물을 이용하여 활착률을 높였음.
- 일부 시, 군은 나무의 활착률 제고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 개선해야 함.

그림 3

식수절 맞이 결기 대회 진행



자료: 로동신문 2016.03.03.

더 많은 나무모를(로동신문 2016.03.20.)

- 국토환경보호성은 중앙양묘장 나무모 야외 재배장을 건설하고 있음.
 - 성일꾼과 건설자, 기술자, 기능공이 협력해 야외 재배장을 80% 이상 건설하였음.
- 산림과학원 경제임연구소가 용기에 의한 나무모 생산 기술을 도입해 병충해와 잡초 피해 없이 건강한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용기에 의한 나무모 생산은 나무의 뿌리와 기질과 결합된 채 조림지로 옮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활착률을 높임.

주요 도로의 수림화 성과적으로 진행 - 평양시에서(로동신문 2016.03.29.)

- 수도 주변의 고속도로와 관광 도로, 주요 도로가 수림화 되었음.
- 평양시당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로의 수림화를 위해 수종이 좋은 나무와 과일나무 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음.

18) 느릅나무의 껍질이나 뿌리 껍질의 가루.

- 2016년 봄철나무심기기간을 맞아 고속도로와 관광 도로, 주요 도로의 수림화를 완수했음.
- 평양시당위원회는 심은 나무의 비배관리를 진행해 모든 나무가 활착하도록 돕고 있음.
- 첫째도 둘째도 활착률 증진 - 기후 조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로동신문 2016.03.29.)
- 초산군의 일꾼과 근로자가 봄철나무심기를 진행하여 령길¹⁹⁾과 도로, 길가에 3~4년 자란 7만여 그루의 가로수와 과일나무를 심었음.
- 초산군의 일꾼은 나무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후 조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했으며 나무모를 옮겨 심는 시기를 땅이 녹기 전으로 선택하였음.
- 가로수 활착률 판정에서 초산군은 평안북도의 본보기로 평가되었음.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 완수(로동신문 2016.03.31.)

- 연사림산사업소 일꾼과 노동자들은 3월 25일까지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운반 작업도 70% 이상 완료하였음.
- 부전림산사업소 일꾼과 노동자는 연간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을 전년 동기 대비 한 달 앞당겨 완료했음.

◆ 축산업

1월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수행(로동신문 2016.01.30.)

- 평안북도안의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성과가 있었음.
 - 신의주닭공장 일꾼과 종업원은 2015년에 비해 적은 사료로 1월 닭알 생산계획을 150% 이상 달성하였음.
 - 구성닭공장은 2015년 1월 월 닭알 생산계획을 110% 이상 달성하였음.
 - 군민룡천돼지공장은 토착미생물이 섞인 깃을 우리 바닥에 깔아 겨울철 온도를 유지했으며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 고기 생산을 늘렸음.
 - 평북돼지공장에서는 사양 관리에 필요한 물을 자연 흐름식으로 사용하는 축산물 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음.
 - 자강도 강계돼지공장 일꾼과 종업원이 인공수정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였으며, 새끼 돼지의 육성률을 10% 이상 높였음.

19) 고개로 오르내리는 길.

- 홍주닭공장은 주 2~3차례 불 및 약물에 의한 호동 소독 등 수의방역을 실시해 매일 수만 개의 닭알을 생산하고 있음.
- 강계오리공장은 지렁이 등 천연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배급해 알의 질을 개선하고 부화율을 높였음.
- 함경남도의 축산기지는 천연 비석으로 가축의 물질 대사 속도를 느리게 하여 사료 속 영양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음.
 - 광포오리공장은 천연 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미생물로 처리한 오리 배설물을 섞어 사료를 20% 이상 절약하였음.
 - 함주돼지공장은 어미 돼지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젖량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해 사료 첨가제사용을 30% 줄이면서, 출산율은 1.7배, 육성률은 1.4배로 높였음.
- 북한은 2016년 1월 한 달 동안 통나무 생산계획을 112%,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은 104% 달성하였음.
 - 관리국과 통나무 생산 책임 일꾼은 통나무 증산 계획 기간 동안 기계톱과 쇠뿔 등 설비와 자재 공급, 후방사업을 지원하였음.

줄어든 생산원가 - 사리원닭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2.12.)

- 각종 미생물효소제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닭 사료 배급량을 줄일 수 있었음.
- 공장은 알곡 사료 소비량을 줄여 원가를 낮출 방법을 찾았고 닭털 분해물을 사료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장은 단백질분해효소를 방출하는 균을 이용하여 닭털 분해물의 아미노산 함유량을 높였음.
 - 닭털 분해물을 처리한 쌀겨와 혼합하여, 쌀겨 속 효소제에 의해 닭털 분해효과를 더욱 높였음.
- 공장은 사료의 흡수율을 20% 높였으며 영양이 풍부한 대용먹이를 만들어 닭알 생산원가를 30% 낮추었음.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에서 한 주 동안 1만 2,000여 톤의 토양개량제 생산(로동신문 2016.03.03.)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장은 한 주 동안 1만 2,000여 톤의 토양개량제를 생산했음.
-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꾼은 2015년에 먹이풀을 10배 이상 증산한 경험에 기초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애국풀》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재배 적지 선정과 종자 확보 작업을 진행함.
- 조선인민군 강신특부대 소속 군인 건설자는 소석회와 흙보산비료 대량 생산에 집중해 하루 7,600여 톤의 토양개량제를 생산하였음.
- 인민보안부여단의 군인 건설자, 인민봉사총국돌격대, 대성지도국돌격대, 대흥지도국, 식료 일용공업성, 보건성돌격대도 수천 톤의 토양개량제 생산에 기여함.

70여 대의 사료 가공 설비를 - 남시축산기계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3.20.)

- 남시축산기계공장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낼 70여 대의 사료 가공 설비 제작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일꾼과 종업원은 지구장비를 새로 제작·도입하여 죽탕기축반침과 설치틀을 이전에 비해 5 배 이상의 생산함.

고기 생산성과 확대 - 각지 현대적인 돼지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3.24.)

- 7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고기 생산이 늘어났음.
- 강계돼지공장의 일꾼은 새끼 돼지 사양 관리에서 사료 확보를 위해 20여 일 동안 사료 공급 통 설비의 70%를 개조하였음.
- 평북돼지공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는 돼지의 생리적 특성에 맞춰 합리적인 사료 배합 비율을 개발하고, 대용 사료를 도입하였음.
- 공장은 섬유질 발효 사료 생산에 좋은 은정복합균을 자체 배양하는 기지를 건설해 알곡 사료 소비를 낮추었음.
- 함주돼지공장의 일꾼과 노동자는 3원 교잡 체계가 가능한 우량 품종의 종자돼지를 확보 하였음.

◆ 기타 작물

효능 높은 먹이첨가제, 춤버섯(로동신문 2016.01.16.)

- 사료는 양어에서 3대 요소 중 하나이며, 첨가제는 사료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첨가제는 물고기의 생육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배합사료에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임.
- 춤버섯은 치어의 생존율과 물고기의 증체율을 높이는 먹이첨가제임.

- 춤버섯은 생산 주기가 짧고 생산성이 높으며 재배하기 쉬움.
- 춤버섯은 구멍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이며 β -글루칸, 트레할로즈, 폴리페놀 등 갖가지 생리적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
- 양어장은 춤버섯을 양어 과정에 사료 원료로 사용하거나 배합사료에 첨가함.
 - 춤버섯을 배합사료에 섞어 양어장에 뿌려주면 물고기의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소화흡수율과 증체율을 높임.
 - 춤버섯은 점결제 역할을 하여 먹이 누실과 수질오염도 예방함.

버섯 생산용 살균 거름종이 국산화 실현(로동신문 2016.02.06.)

-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에서 버섯 생산에 필요한 거름종이를 북한의 원료와 기술로 국산화하였음.
 - 버섯 생산용 살균 거름종이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비롯한 오염 물질을 여과하여 순수한 공기만을 배양 기질에 공급함.
- 개발된 살균 거름종이는 버섯 배양 중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버섯균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함.
 - 장마철에 버섯균이 오염될 확률이 가장 높음.
- 살균 거름종이는 습기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함. 쓸수 있다고 한다.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3.17.)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꾼과 노동 계급이 생산속도를 2.2배로 증가시켜 한 달 앞당겨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음.
 - 공장 일꾼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자재와 부속품 등을 미리 공급했음.
 - 공장은 고치 걸면 깎기와 명주실 생산속도를 1.7배로 늘려 연간 최다 생산량의 기록을 경신하였음.
 - 공장의 숙련 일꾼은 미숙한 조사공을 도우며 매일 생산 계획을 200% 달성하였음.
- 용북식료공장에서는 현대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수행했음.
 - 공장은 원료 확보에 집중해 70일 전투 시작 1주일 후에 연간 계획에 필요한 원료를 모두 확보함.
 - 공장은 매일 생산 계획을 2.2배로 높여 2016년 2월 9일까지 상반기 인민경제계획을 107.8% 달성했음.

비단실 생산 2배 장성 - 잠업비단공업국 소속 공장에서(로동신문 2016.03.18.)

- 70일 전투가 시작된 후 북한의 하루 평균 비단실 생산량은 2016년 2월에 비해 2배로 늘었음.
 - 김정숙평양제사공장과 함흥제사공장의 비단실 생산 증가량이 가장 많았음.
 - 강서제사공장과 성천제사공장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운동을 통해 비단실 증산에 집중하고 있음.

3 농업기반 및 농자재

◆ 토지 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10만산대밭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세로 -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연합기업에서(로동신문 2016.01.12.)

-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연합기업의 간석지 건설사들은 안산지구의 대삼곶도에서 10만산대밭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 현재는 수천 미터 구간의 2호와 4호 제방 내재 장석 공사를 진행 중임.

종합 토양관리 기계 생산으로 꺾는다 - 용진군농기계작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1.13.)

- 2015년 진행된 제42차 전국 농기계 전시회 및 창안자 회의에서 1등으로 평가된 농기계는 깊은 층 들춰갈이와 마른논 썩레치기, 수평 고루기 작업을 동시에 하는 농기계임.
 - 기계는 갈이를 깊이 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토양의 물 저장 능력이 높아짐.
 - 기계는 뿌리가 내리는 부위에 영양원소가 집중되게 하여 벼 생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줌.
 - 작업 능률은 이전보다 1.6~1.8배로 높아졌으며, 연유 소비량은 40~45% 줄어들었음.
 - 마른논 썩레치기 작업을 하면 정보당 0.2~0.3정미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음.
- 지난해 용진군립석협동농장 등 여러 농장에서 이 기계를 사용한 결과, 9~12%의 알곡이 증수되었음.

용매도 간석지 4구역 건설 시작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에서(로동신문 2016.01.18.)

- 용매도 간석지 4구역 건설은 수백만 m²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십 리의 방조제 공사와 30여만 m²의 장식공사, 9,000여 m²의 콘크리트치기 등 많은 건설 작업을 필요로 함.
 - 용매도 간석지 4구역이 완공되면 두개의 큰 농장 농경지 크기의 간석지가 생겨나 많은 작물이 생산될 예정임.

1,500여 정보의 토지를 개량 - 함주군에서(로동신문 2016.03.15.)

- 함주군 일꾼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계획하였던 1,500여 정보의 토지개량사업을 보름 앞당겨 끝냈음.
 - 함주군 책임일꾼은 토지개량에 필요한 카바이드재²⁰⁾를 들이는 작업을 수행했음.
 - 동봉, 수흥협동농장 등 농장은 냉습지 개량 사업도 진행했음.

◆ 물길공사 저수지, 물 보장

물 확보 전투에 과감히 떨쳐내(로동신문 2016.01.12.)

- 평양시에서는 봄철 영농기에 대비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양수 설비의 이설 및 증설 공사가 진행 중임.
 - 평양시는 함경북도 경흥군, 명천군, 경원군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600여 정미의 수원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세움.
 - 일꾼들은 당 대회 전에 저수지 건설을 마치기 위해 성토 작업과 암반 깨내기, 장식 쌓기를 공사 일정에 맞춰 진행 중임.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 착공(로동신문 2016.02.06.)

-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이 건설될 것임.
 - 청천강-평남 관개 자연흐름식 물길 건설 착공식이 2016년 2월 5일 개천시 준혁리에서 진행되었음.
 - 착공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곽범기와, 박태성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참가하였음.

물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한 보람 - 백마-철산물관리소에서(로동신문 2016.02.24.)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와 백마-철산물관리소가 백마호 물관리에 컴퓨터 조종 체계를

20) 카바이드와 물이 작용하여 아세틸렌이 발생하고 남은 찌꺼기.

도입해 취수탑의 취수문과 방수문 등 수십 개의 수문을 자동 조종하였음.

- 일꾼과 기술자는 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의 연구원과 연구하여 컴퓨터 조종 체계로 수문을 자동 조종하는 방법을 찾았음.
 - 자동 조종 방법으로 2015년, 20~30%의 물을 절약하며 영농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물길굴, 물다리, 흙물길 공사 완공 -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평안남도여단에서(로동신문 2016.03.10.)

- 평안남도여단의 일꾼과 돌격대원이 6만여 m³의 암석 굴착과 3만여 m³의 토량 처리, 13만여 m³의 버럭²¹⁾ 처리, 1만여 m³의 콘크리트 치기를 진행하여 3,000여 m의 5개소의 물길굴과 1개소의 물다리, 흙물길을 완공하였음.

2배의 물 확보, 2만여 km의 물길가시기 진행 - 서해지구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로동신문 2016.03.21.)

- 서해지구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가 2016년 3월 20일에 물 확보 계획을 115% 달성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2배의 물을 확보하였음.
- 최근 보름 동안 2만여 km의 물길가시기를 하였음.
 - 개천 - 태성호물길관리소 일꾼과 기술자, 종업원은 10여 개소에서 수십m²의 장석 공사를 진행하였음.
 - 관리소는 장석 공사를 통해 뚝을 보강하고 폐임 현상을 예방해 물통과능력을 이전에 비해 1.3배 높였음.
 - 관리소는 20여 개 저수지의 물 확보 계획을 2015년에 비해 40여 일 앞당겨 완수했음.
 - 평원, 숙천, 대동, 온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장은 100년 내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2015년과는 다르게 2016년에는 대동강의 민물을 사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음.

2015년의 1.5에 달하는 관개 구조물 보수 진행(로동신문 2016.03.24.)

- 함경북도에서는 2015년에 홍수 피해를 입은 관개 구조물을 보수하였음.
 - 온성군 일꾼과 근로자는 돌을 쌓아 강의 물속 돌 제방을 복구하였고, 철 그물을 만들어 제방을 견고히 하였음.
 - 명천, 경흥, 경원군은 저수지 보수와 건설을 진행하였음.

21) 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

- 남포시 일꾼과 근로자는 와우도 구역, 항구 구역과 온천군 일부 밭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 빗물, 눈석임물 등 모든 민물을 저장하기 위해 하천보막이 공사를 수행하였음.
 - 남포시 70개소의 보막이공사가 완공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 4.9배 많은 관개 구조물 보수가 진행되었음.

◆ 거름, 비료, 농약

사회주의 농촌을 힘 있게 지원 -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6.01.0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의 도급²²⁾ 기관, 공장, 기업이 새해 하루 동안 14만 톤의 거름을 도내 모든 시, 군의 밭에 배급함.
- 평안남도의 도급 기관은 거름을 화물 자동차에 실어 평원군 원화 협동농장으로 보냄.
 -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탐사관리국, 도대흥관리국 등 도급 기관은 도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름 배급 사업을 수행함.
- 황해남도는 25만여 톤의 거름과 삼과 호미 60만 여개 등 중소 농기구를 농촌에 보급함.

농촌 각지에서 20여 일 동안 수십만 톤의 대용비료 원료와 성장촉진제 생산(로동신문 2016.01.25.)

- 전국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는 20여 일 동안 인회토, 비석, 질석, 휴민산염 등 대용비료의 원료와 성장촉진제를 수십만 톤 생산했음.
 - 2016년 대용비료 원료의 생산량은 2015년 보다 1.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평안북도 일꾼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 평안북도 염주군의 일꾼과 근로자는 수천 톤의 인회토를 확보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배 늘어난 물량임.
 - 평안북도 구성시의 일꾼과 근로자는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비석을 많이 캐냈음.
 - 평안북도 동림군의 농업 근로자는 농작물에 칼륨 등 영양 원소를 보충해주는 질석 확보에 집중했음.
 - 신의주시, 철산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내 많은 시, 군에서 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 20여 일간 1만 수천 톤의 인회토, 수천 톤의 질석, 수백 톤의 비석이 확보되었음.
- 황해북도 평산군에서는 수천 톤의 휴민산염, 연산군과 신평군에서는 각각 수백 톤의 휴

22) 기구나 체계 따위에서, 도(道) 단위에 해당하는 급.

민산염을 생산하였음.

- 황해북도의 휴민산염 전체 생산량은 3만 수천 톤, 인회토 전체 생산량은 4만 수천 톤이었음.

- 평안남도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유기광물질복합알비료의 원료인 휴민산염 확보와 남조류 생물활성퇴비 생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2.14.)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은 비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기업소는 난방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열악한 겨울철 생산 여건에 대비해 원료 및 연료 확보 대책을 세워 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압축기직장, 암모니아직장, 요소직장 등 여러 직장에서 비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음.
 - 암모니아직장의 일꾼은 흡수용액 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따라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음.
 - 요소직장의 노동자는 원단위소비기준²³⁾을 낮추어 비료생산 확대의 성과를 이루었음.

흙보산비료 원료 생산계획 95% 계선 돌파 - 농촌 각지에서(로동신문 2016.02.22.)

- 농촌 각지에서 흙보산비료 원료 생산계획을 95%이상 수행하여 농사 준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 개성시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이탄 채굴에 집중하여 7,000여 톤을 확보하였음.
- 황해북도의 수안군과 금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도적으로 계획된 흙보산비료 원료를 전부 생산하였음.
- 함경북도 및 평안남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부식토 생산과 이탄 채굴에 집중해 계획을 수평안남도 회창군은 특히 생산해 놓은 부식토를 2만 4,000여 톤 실었음.
- 황해남도 웅진, 배천군의 농업 부문 일꾼과 근로자가 흙보산비료 원료를 100% 확보하였음.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들에서도 원료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이 끊는다 -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로동신문 2016.02.28.)

- 황해남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농사 준비에 성과를 내었음.
 - 농업 근로자와 운반 수단이 동원되어 2016년 2월 23일 하루에 거름 운반 계획을 115%,

23) 단위 제품을 생산하거나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 연료, 설비, 자금 따위의 이용 및 소비 한계를 규정하는 국가적 기준.

흙보산비료 생산은 120% 수행하였음.

- 도의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는 거름 생산과 운반, 흙보산비료 생산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황해남도의 재령군 삼지강 양계협동농장과 안악군, 은률군이 농사 준비에 성과를 냈음.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이 끊는다 - 평안북도의 시, 군에서(로동신문 2016.02.28.)

- 평안북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농사 준비 마감 단계에서 속력을 내고 있음.
 - 도의 모든 시, 군 협동농장은 관개수로 정리, 논밭 흙갈이, 거름 생산과 운반, 중소농기구 준비, 비료와 비닐박막 등 영농 물자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신의주시와 정주시, 동림, 철산, 염주, 용천군을 등 모든 시, 군 협동농장은 물길들 정리하고 파낸 흙으로 논밭 흙갈이를 진행하고 있음.
 - 사회주의 대지에 수십만 톤의 거름을 운반하였음.

동해지구 농촌에서(로동신문 2016.03.01.)

- 2016년 3월 첫째 주 한 주 동안 동해지구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수십만 톤의 거름을 받게 보냈음.
- 함경북도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2016년 2월 23일에 4만여 톤의 거름을 받기로 보냄.
 - 경흥군의 농업 근로자는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진거름과 가축 배설물을 받기로 운반함.
 - 회령시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알곡 소출을 낼 수 있다며 거름과 모판부식토 운반을 동시에 진행함.
- 함경남도 함주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유기질 거름을 썩혀 거름을 생산하였음.
 - 정평군에서도 기관, 기업소의 일꾼과 근로자는 자동차와 손수레, 트랙터로 거름을 운반하였음.
 - 강원도 원산시, 김화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거름 운반과 흙보산비료 원료 확보를 진행하였음.

3만 수천 톤의 유기질 비료 증산(로동신문 2016.03.08.)

- 세포군에서 최근 6일 동안 계획 보다 3만 수천 톤의 유기질비료를 추가 생산하였음.
- 세포군은 2015년 보다 한 달 앞당겨 유기질비료 생산을 마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증산의 목표를 세움.
 - 후평, 북평축산농장 농업 근로자가 앞장서 매일 1톤의 유기질비료를 추가 생산했음.

- 약수, 대문축산농장은 비료를 추가 생산한 농장을 배우기 운동을 실시하여 세포군이 유기질비료 생산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었음.

경쟁 열풍 속에 높아가는 감자 농사 혁명의 불길 - 북부고산지대 농촌에서 수십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실어냈다(로동신문 2016.03.10.)

- 북부고산지대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10여 일 동안 20여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감자밭에 운반했음.
 - 대흥단군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10여만 톤의 유기질비료를 밭에 운반했으며, 흥암, 신흥, 농사동 농장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수천 톤의 유기질비료를 밭으로 운반하였음.
 - 백암군 일꾼과 농업 근로자도 2만여 톤의 유기질비료를 운반하였음.
 - 부전군 문암, 은하 협동농장, 장진군 백암, 늑수, 축전 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도 각종 운반 수단을 이용해 매일 유기질비료 목표 운반 양을 초과 달성하였음.

흡보산비료 원료 확보(로동신문 2016.03.10.)

-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이 최근 3일 동안 흡보산비료 생산에 필요한 수천 톤의 이탄을 채굴하였음.
- 농장은 흡보산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원료인 금강약돌, 고회석, 초목회, 닭 배설물 확보 사업도 추진하였음.

풍화탄으로 종자처리제 생산 - 길주군에서(로동신문 2016.03.17.)

- 길주군은 풍화탄을 이용하여 종자처리제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길주군의 일꾼은 풍화탄을 분쇄하여 80~100℃에서 2시간 닭은 후 과석을 넣어 산도를 정확히 유지해 고농도 휴민산을 생산했음.
- 봉암협동농장과 주남협동농장이 휴민산 생산을 위해 각각 7톤의 풍화탄을 채취하였음.

농촌 각지에서 대용비료생산 1.2배 장성(로동신문 2016.03.24.)

- 농촌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대용비료 생산을 1.2배로 늘림.
 - 평안북도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인, 칼륨 대용비료인 인회토유기광물질비료, 칼륨티탄비료 생산에 집중하였음.
 - 황해북도 농촌은 미생물비료와 미량원소비료를 생산하였음.
 - 강원도 천내군의 일꾼과 농업 근로자는 인비료를 대용하며 뿌리썩음병 예방 효과가 있는

티오균비료와 고농도인세균비료를 증산하였음.

전국 농촌에 수천 톤의 벚모판비료를 생산 보장(로동신문 2016.03.31.)

- 농업성의 일꾼과 농업과학원 농업화학연구소의 과학자,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꾼과 노동자는 수천 톤의 벚모판종합영양제 생산 작업을 끝냈음.
- 강남군 당곡협동농장과 대동군 성삼협동농장에 따르면 벚모판종합영양제를 사용한 후 모 선률이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음.
 - 벚모판종합영양제는 작물의 초기 생육에 도움이 되며 분얼 시기를 앞당겨 정보당 알곡 소출을 10~15% 증가하게 함.
-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생산한 수천 톤의 비료는 수십만 정보의 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임.

4 기타 동향

김정은의 신년사(로동신문 2016.01.01.)

- 경제강국 건설에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이 경제강국 건설을 이끌어야 함.
-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 당과 전 국가가 합심해야 함.
 - 기존의 발전소를 정비·보강하고 만부하로 가동하여 전력을 증산해야 함.
 - 단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발전 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모든 부문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석탄공업 부문에서 석탄을 활발히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함.
- 금속공업 부문에 대해 국가적 대책을 확립하고 금속 공장의 주체화 및 현대화를 이루어 철강 재생산을 늘려야 함.

- 철도운수 부문에서 규율, 수송조직,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열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철도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함.
 - 농업 부문에 우량 품종과 과학농법을 도입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해야 함.
영농 공정별 보장 대책을 세워 알곡 생산계획을 수행해야 함.
 - 축산과 수산 부문에서 생산을 늘리고 전국의 양어장과 채소 온실, 버섯 생산지가 성과를 내어 인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야 함.
 - 경공업 부문에서 공장과 기업의 현대화 실현하고 원료 및 자재 확보 대책을 마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야 함.
 - 건설 부문에서 중요 생산 시설과 교육 문화 시설, 주택을 최고 수준 건설하여 건설업의 번성을 이어나가야 함.
 - 전 국민이 모두 산림 복구 작업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전 국민은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과학 연구 부문은 사회주의 자립 경제 확립과 인민 생활을 향상에 집중해야 함.
 - 과학기술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연구 사업을 심화하여 최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함.
 - 공장, 기업, 협동농장은 과학기술 보급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 누구나 현대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독려해야 함.
 - 북한 내각과 국가 경제 기관은 경제계획과 지휘 체계를 개선해야 함.
 - 경제 기관 지도자는 근로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하고, 경제 발전 계획을 완강하게 추진해야 함.
 - 임중도원의 상황에서도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불길 높이 -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각지 공장, 기업에서(로동신문 2016.01.30.)
-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 1,500톤 능력의 즉석 국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평양곡산공장의 당과류 생산공정을 무균화, 무인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
 - 용약산샘물공장과 평양향료공장에서 생산공정의 무인화가 진행 중임.
 - 북한 내 공장들과 기업은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 규격화·표준화된 원자재를 공급하고, 공정 검사와 품질 검사를 과학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음.

- 평양곡산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용약산샘물공장 등은 과학 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지방공업 부문에서도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등 종합 식료공장이 지방의 특색을 살린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 - 평양식료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6.02.01.)

- 연합기업소는 콩 우유 가루, 분유 등 어린이 식료품과 당과류, 청량음료, 기초식품 등 중요 지표별 현물 생산계획을 수행하였음.
- 대동강식료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은 설비 관리와 기술 관리에 집중하였음.
-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는 1월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과자, 사탕 등 당과류 생산을 늘렸음.
- 간장, 된장을 생산해 2015년 기초식품생산계획에서 성과를 낸 평양기초식품공장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생산 정상화를 이루었음.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전진 - 편직공업관리국에서(로동신문 2015.02.01.)

-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에서 2016년 1월, 공업 총생산액 부문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음.
- 선교편직공장은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생산 정상화를 이루었음.
- 평양양말공장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양말을 생산했음.
- 남자양말직장 노동자, 기술자는 초등학생에게 보급 될 제품을 생산해냈음.
- 순천편직공장 노동자, 기술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 활성화를 이루었음.
- 강서편직공장, 신의주편직공장은 배당된 1월 인민경제계획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애국편직물공장과 강계편직공장은 현대화는 곧 국산화라는 관점에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주년 경축 공연 진행(로동신문 2016.02.01.)

- 조선농업근로자동맹창립 70주년 경축 행사가 2016년 1월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로동신문 2016.02.02.)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3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16년 2월 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 일꾼이 회의에 참가하였음.
- 농근맹 조직은 알곡과 축산, 온실 채소, 버섯 등 농축산업 여러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였음.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로동신문 2016.02.04.)

- 지식인에게 학위학직이 수여되었음.
 - 2016년 2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김용진 내각부총리와 지식인들이 참가하였음.
- 178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734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었음.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일행 귀국(조선중앙통신 2016.02.04.)

- 중국정부 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이 2016년 2월 4일 중국으로 귀국하였음.
 -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가 배웅하였음.
- 방문기간 주조선반도문제특별대표와 일행은 이수용 외무상을 공식 방문하고 이용호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였음.
 - 담화와 회담에서 조중쌍무관계와 지역 정세를 포함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개성공단 자산 몰수 및 군사분계선 봉쇄 관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로동신문 2016.02.12.)

(생략)²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취함.
 -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 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
 -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인원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함.
 -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함.

24)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부분은 생략하였음.

- 추방되는 인원은 사품 외 물건은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은 개성 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임.
-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함.
- 2016년 2월 11일 북한 근로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경제 일반 및 농업·농촌 부문 발췌)

○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제7차대회에 즈음한 공동 구호를 발표했다.

- 태양열, 풍력, 조수력, 지열 에너지를 적극 개발·이용하라.
- 나라의 전력관리체계를 전기절약형으로.
- 전기절약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리자.
- 농업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주체비료를 팡팡 생산해내라.
-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라.
-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자.
- 우량 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라.
-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철저히 실현하라.
- 삼지연군을 감자 농사의 표본으로 훌륭히 꾸리자.
-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끝내라.
-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 사회주의 협동 논밭에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차 넘치게 하라.
- 온 나라가 온실채소 생산 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라.
- 평양시버섯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버섯 생산기지를 도처에 일떠세우라.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이 성과를 내게 하라.
- 풀과 고기를 바꾸는 것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자.
- 《애국풀》을 대대적으로 심자.
- 수산물 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라.
-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키라.

- 바다로 진출하여 바다 양어의 선진국 대열에 올려세우자.
- 이동식 그물 우리 양어를 적극 전개하라.
- 과수의 기계화,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더욱 높이라.
- 모든 과수농장을 청춘과원으로 만들라.
- 인민 소비품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가라.
- 경공업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라.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 식료공장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라.
- 어린이식료품생산을 늘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라.
- 지방공업 발전에서 지역적특 성을 살리라.
-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라.
- 기업소에 두뇌진을 강력하게 꾸리라.
- 토지 관리와 보호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라.
- 홍수와 가뭄, 태풍과 폭설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라.
- 도로의 현대화, 증량화, 고속화를 실현하라.
- 묘목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라.
- 나무의 활착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라.
-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온 나라에 퍼치라.
- 화초와 지피식물을 많이 심어 생땅이 없게 하라.
- 강과 호수,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라.
- 과학기술로 지식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라.
- 최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라.
-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라.
- 과학자를 우대해주고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라.

첨단 생산공정을 최단기간에 – 실포물고기통졸임공장의 전투원(로동신문 2016.03.03.)

○ 실포물고기통졸임공장은 통조림 생산공정의 무균·무진화 실현과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음.

- 공장은 통합 조종 체계 구축, 전력 계통의 현대화 등 공정을 첨단 수준으로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전원회의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16.03.3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전원회의가 2016년 3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전원회의에는 사회주의헌법 제116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5년 국가예산지출 결산과 2016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 토의하였음.
- 2015년 국가예산수입 계획은 101.3% 수행되었으며 2014년에 비해 105% 성장하였음.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시, 군의 노력으로 지방예산 수입은 계획의 113.8% 달성되었음.
- 국가예산 지출은 다음과 같음.
 - 국가예산의 15.9%는 국방비로 지출되었음.
 - 국가예산의 47.5%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사용되었음.
 - 경제강국 건설의 추동력인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경제강국 건설에 지출한 비용이 2015년에 비하여 104.7% 늘어났음.
 -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 발전을 비롯한 문화 건설에 지출 총액의 36.6%를 사용했음.
- 2016년 국가예산수입은 2015년도 보다 104.1% 증가했음.
 - 국가예산수입 중 거래수입금은 103.3%, 국가기업이익금은 104.5%, 협동단체이익금은 101.5%, 부동산사용료는 104%, 사회 보험료는 101.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금 수입은 102.5%, 기타 수입은 101.3%, 경제 무역 지대 수입은 104.1%로 늘릴 계획임.
 - 국가예산수입에서 중앙예산수입은 76.8%, 지방예산수입은 23.2%를 차지함.
- 국가예산지출은 2015년에 비해 105.6%로 늘릴 계획임.
 - 국가예산지출 중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공업 부문에 104.8%, 농업 부문에 104.3%, 수산 부문에 106.9%, 기본 건설 부문에 113.7%, 산림 부문에 107.5%로 투자를 늘릴 것임.
 -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지출을 105.2%로 늘려 우주과학기술과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임.
 - 교육 부문에 108.1%, 보건 부문에 103.8%, 체육 부문에 104.1%, 문화 부문에 107.4% 지출을 늘려 인민의 생활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임.
 -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8%를 국방비로 사용할 계획임.
 - 국가예산 중 일부를 재일 동포 자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보내 줄 것임.